

# 순창군, 내년도 본예산 5747억원 편성 전국 소방가족 힐링캠프 개최

전년 대비 436억원 증가… 농어촌기본소득·사회복지 등 중점 편성

순창군이 2026년도 본예산안을 총 5,747억원 규모로 편성해 순창군의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보다 약 436억원 증가한 수치로, 농어촌기본소득을 포함한 국도비 증가에 따라 본예산 기준 순창군 역사상 처음으로 5,700억원대를 달성했다.

이번 예산은 일반회계 5,568억원, 특별회계 179억원으로 구성됐으며,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9.26%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16.48% 감소했다.

분야별 세출 예산은 사회복지 1,289억원, 농림해양수산 1,034억원, 일반공공행정 748억원, 환경 596억원 등으로

배정됐다.

군은 산·하수도 시설정비 등 생활밀착형 사업과 재난재해 예방, 폐기물 처리 등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예산을 대폭 확대해 살기 좋고 활력 넘치는 순창 조성에 집중했다.

또한 취약계층 복지비 증액과 교육, 문화, 관광 인프라 확충 등 전 분야에 걸쳐 균형 있는 예산 배분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예산안에는 전국적 관심

목표로 한 선도적 정책 실험으로 평가 받고 있다.

군은 이를 통해 농촌 인구 구조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동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농어촌기본소득을 통해 군민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만들고 순창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담았다”며 “읍·면 균형 발전과 군민 행복 실현과 통해 순창의 미래를 보장하는 청해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예산안은 순창군의회 정례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 임실군, 덕치면 복지회관 새 단장

### 지역공동체 중심 재탄생

임실군 덕치면 복지회관이 지역공동체 중심의 여가와 문화, 복지 등 복합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군은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의 핵심 사업인 ‘덕치면 복지회관 증축 공사’ 준공식이 덕치면 복지회관 아외마당에서 성대하게 열렸다고 25일 밝혔다.

준공식에는 이진관 임실 부군수와 정종민 임실군의회 의장, 박정규 전북 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등 주요 기관단체장을 비롯해 지역 주민 25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복지회관의 탄생을 함께 축하했다.

이번 사업은 덕치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 협

약을 통해 선정된 사업으로 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인 교육·문화·복지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는 하드웨어(H/W) 사업과 주민 참여 확대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소프트웨어(S/W) 사업으로 병행 추진됐다.

덕치면 복지회관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40억원(국비 27억원 포함)을 투입해 조성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 복지회관(419.3㎡)을 리모델링하고, 신규 복지회관(덕치어울림관, 292.94㎡)을 증축해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또한, 주민 편의를 위한 아외마당(621.8㎡)과 주차장(642.3㎡)을 함께 조성해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였으며, 2024년 착공 이후 올해 11월 준공했다. 이와 함께 리더 교육, 주민 워크숍 등 지역·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병행 추진해 주민 참여와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했다.

군은 덕치면 복지회관을 덕치면의 복지·문화 활동의 중심지로 주민 간 소통의 장으로 유연해, 면민이 함께 어울리는 활력있는 생활거점 공간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임실군은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의 핵심사업인 ‘덕치면 복지회관 증축 공사’ 준공식이 덕치면 복지회관 아외마당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 남원시, K-방제 드론 전문가 양성 2기 교육과정 운영

남원시는 지역 드론 운용·방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한후 지역 드론사업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11월 24일부터 12월 22일까지 총 21일간 ‘K-방제 드론 전문가 양성 2기 교육과정’을 운영했다.

2기 과정은 농업·산림·환경 방제 분야에 특화된 K-방제 드론 1종 전문

이하 기체를 대상으로 진행, 교육 장소는 1종 자격 인증 교육기관인 일파드론 무인항공교육원으로 드론 실습을 위한 장비·교육장 등을 체계적으로 갖춘 전문 교육기관이다.

남원시와 호원대학교는 지난 4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공모사업에 선정돼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국비 5억 원을 확보했으며, 본 교육은 교육부·호원대학교·남원시가 연계해 운영하는 국비 사업이다.

/남원=김기우 기자

임실 치즈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N 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

### 지역 소식 통

#### 임실군, 교통약자

##### 특별교통수단 1대 증차

임실군이 교통약자의 이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 1대를 추가로 증차했다.

이번 증차로 임실군은 법정 대수인 8대를 확보하게 되어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특별교통수단은 훨체어 탑승이 가능한 개조 차량으로, 보행장애인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를 주요 대상으로 운영된다.

이 서비스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며, 지역적 제한 없이 필요에 이용이 가능하다.

군은 새 차량의 안전 점검을 마친 뒤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임실군은 2013년부터 민간단체에 교통약자 이동지원 업무를 위탁해 임실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25년 3월 운전원 서비스 만족도 1위를 달성하는 등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심민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보급 확대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와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충영 기자

### 남원소방서, 구급차

#### 동승 실습 실시

남원소방서는 25일 응급의료 지도의사 양성 과정의 일환으로 구급차 동승 실습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습은 응급의료 지도의사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는 동시에 신속한 판단과 의사결정 능력을 키우고, 현장의 다양한 응급 상황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특히 이번 실습을 통해 병원 전 단계에서의 응급의료체계를 경험하게 된다고 남원소방서는 전했다.

남원의료원 응급의학과 최새벽 교수는 “응급의료 지도의사의 현장 경험이 더해짐으로써 응급 환자의 생존율이 높아지고, 지역 사회의 응급의료체계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우 기자